

지금이순간-경부대로, 이젠 ‘자마 대결’

지금이순간 자마 ‘심장의고동’ 유명
올해 대상경주 ‘세계일보배’ 우승도
경부대로 자마 ‘라온여걸’은 2승째

경마는 혈통 스포츠라고 불린다. 좋은 유전자자 명마 탄생의 시발점이다. 그래서 좋은 혈통을 가진 씨수말의 몸값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2014년 5월 10일 서울 경마공원에서는 흥미로운 경주가 있었다. 외국에서 수입해 온 최고 씨수말 메니피의 자마 아버지처럼과 국내 첫 삼판마인 국산씨수말 제이에스홀드의 자마 부전자전이 맞붙었다. 리딩사이어 메니피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주 전에는 아버지처럼의 인기가 높았으나, 경주결과는 이런 예상과 달리 부전자전이 우승했다.

한국 경마에서 활약하는 국산마들은 대부분 메니피, 한센, 액톤파크 등 한국마사회가 도입한 해외 씨수말들의 자마다. 그렇기에 부전자전과 같은 국산 씨수말의 자마가 해외 씨수말의 자마를 제친다는 것은 우리 경마산업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경주마 라이벌에서 최강 국산 씨수말 라이벌로

1월19일 열린 세계일보배의 주인공은 4세마 심장의고동이었다. 2012년 코리아던비 우승마 지금이순간의 자마다. 지



경주마 시절 각각 서울 대표마와 부산 대표마로 맹활약하던 지금이순간(위)과 경부대로의 레이스 모습. 이제는 경주마 라이벌에서 씨수말로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난해 코리아던비 출전 때는 한국경마 최초 부자(父子) 동반 우승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2위에 그쳤다. 이후 일간스포츠배에서 우승하며 국산 씨수말의 자마로는 최초로 대상경주에서 우승했다. 그 여세를 몰아 국산마 최고의 경주인 대통령배 입상, 올 첫 대상경주인 세계일보배 우승을 했다.

심장의고동 아버지인 지금이순간은

2012년 코리아던비에 우승하며 최강 3세마로 이름을 떨쳤다. 이듬해 마주협 회장배 등 대상경주에서 잇달아 우승하며 경주마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지만, 2014년 이른 나이인 4세에 은퇴하고 씨수말로 전환됐다.

지금이순간이 서울에서 활약했다면 같은 시기 부산 대표마는 경부대로였다. 둘은 같은 나이로, 2012년에서 2013년

까지 대상경주에서 7번 맞붙었다. 지금이순간이 맞대결에서는 5번을 앞섰다.

경부대로는 5세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2014년도 대통령배와 그랑프리를 석권하며 쟁쟁한 외산마를 제치고 최강마 왕좌에 올랐다. 2016년부터 씨수말로 전향했는데 지난해 5월 데뷔한 자마 라온여걸이 5번 출전해 2번 우승, 1번 준우승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국산 씨수말의 가능성…경마산업 미래 밝다

지금이순간, 경부대로와 같은 국산 퇴역마들이 성공적으로 씨수말로 전환해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그만큼 한국 경마산업의 미래는 밝아진다. 값비싼 해외 씨수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국산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국산마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6월 파워블레이드가 은퇴해 씨수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파워블레이드는 2세마 최고 경주인 브리더스컵 우승, 3세 때는 트리플크라운 시리즈 3개 경주를 모두 우승하며 한국경마 최초 서울·부경 통합 삼판마가 됐다. 4세 때는 그랑프리까지 우승한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밖에 역대급 경주마로 평가받는 트리플나인의 씨수말 데뷔시기도 관심거리다. 외산 씨수말 메니피와 한센의 아성에 도전할 최강 국산 씨수말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문학치프 vs 청담도끼

9일 ‘제 10경주’ 슈퍼스타 총출동
플라잉뮤닝·나스카프린스도 복병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서울 경마공원에서 9일 제10경주로 1등급 경주마의 2000m 레이스가 펼쳐진다. Road to G1 챔피언십으로 대통령배와 그랑프리의 출전승점이 부여된다. 총상금 1억1000만 원을 두고 문학치프, 청담도끼 등 슈퍼스타 경주마들이 대거 나섰다.

●문학치프(수말, 5세, 미국, 레이팅 133, 권경자 마주, 김순근 조교사, 승률 52.4%, 복승률 66.7%)

2019 연도대표 수상, 최고 레이팅 보유, 전년도 코리아컵·그랑프리·YTN배를 모두 석권한 명실상부 챔피언 경주마다. 6번의 대상경주에서 세 번의 우승과 두 번의 2위를 차지했다. 2015년에 미국의 삼판마로 등극한 ‘아메리칸파로아’와 형제마로서 명품혈통을 자랑한다.

●청담도끼(거세마, 6세, 미국, 레이팅 130, 표중순 마주, 최용구 조교사, 승률 53.8%,

복승률 61.5%)

수득상금은 서울경마 2위로 문학치프보다도 4억 원 이상 높다. 두 경주마는 2019년 대결에서 문학치프가 3승 2패로 우세하다. 하지만 역대 5번 격돌한 2000m에서는 청담도끼가 4번이나 앞섰다.

●플라잉뮤닝(거세마, 5세, 미국, 레이팅 81, 이장한 마주, 김순근 조교사, 승률 10.5%, 복승률 36.8%)

총 19전 중 우승은 2회이나 15번의 순위상금을 거둬들였다. 특히 1800m, 1900m에서 우승하며 장거리에 강한 모습을 보였

으며 2000m는 첫 출전이다. 45조 김순근 조교사가 문학치프와 함께 관리중인 경주마다.

●나스카프린스(수말, 6세, 레이팅 91, ㈜나스카 마주, 송문길 조교사, 승률 30.0%, 복승률 55.0%)

1억 원이 넘는 높은 최초도입가를 자랑한다. 기대에 부응하듯 데뷔 후 17경기 연속 순위상금을 획득했다. 지난해 5월 2300m 최장거리에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하며 지구력을 과시했으며, 이후 다소 자신감이 하락한 모습이다. 정용운 기자

농구팬 76% “토론토, 어빙 빠진 브루클린에 완승” 축구팬 80% “유벤투스, 헬라스베로나 쫓아야”

농구토토 승5패 5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2월 8일(토)과 9일(일) 사이에 벌어지는 미국 프로농구(NBA) 7경기과 국내남자프로농구(KBL)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승5패 5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토론토-브루클린(7경기)전에서 홈팀 토론토가 76.32%의 승리 예상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양팀의 5점 이내 접전 예상은 14.16%로 나타났고, 원정팀 브루클린의 승리 예상은 9.52%로 집계됐다.

현재 토론토는 밀워키에 이어 동부 컨퍼런스 2위(36승14패)에 올라있고, 브루클린은 중위권인 동부 컨퍼런스 7위(22승27패)에 위치하고 있다.

다덴턴 챔피언 토론토는 지난 해 에이스를 잃었다. 여름 직전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카와이 레너드를 LA클리퍼스로 보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토론토는 리그 순위 경쟁에서도 뒤처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외로 파스칼 시아캄이 활약을 펼치며, 레너드의 공백을 훌륭히 메우고 있다.

반면 브루클린은 듀란트 없이 팀을 이끌던 카이리 어빙이 오른쪽 무릎을 다치면서

팀 전력에 이상이 걸렸다. 현재 캐리스 리버트가 활약하며 팀을 이끌고 있지만, 카이리 어빙이 지난 1일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최다인 54점을 성공시킨 것에 비추어 보면, 공격력에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랜드 월정을 떠나는 동부 컨퍼런스 선두 밀워키의 승리 예상은 80.14%로 집계돼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팀의 5점 차 이내 접전 승부 예상과 올랜드의 승리 예상은 각각 10.69%와 9.17%를 기록했다.

2월 8일(토)에 펼쳐지는 부산kt-원주DB(1경기)전에서는 원주DB가 62.12%의 투표율을 차지했다. 이어 양팀의 5점 차 이내 접전 승부 예상과 부산kt의 승리 예상은 각각 21.45%와 16.4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2월 9일(일)에 펼쳐지는 원주DB-고양오리온(11경기)전에서도 원주DB는 77.00%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양팀의 5점 차 이내 접전 승부 예상과 고양오리온의 승리 예상은 12.90%와 10.1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한편 NBA와 KBL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농구토토 승5패 5회차 게임은 2월 8일(토) 오후 2시 50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중간집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8일(토)부터 10일(월)까지 열리는 이탈리아 세리에A 7경기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헬라스베로나-유벤투스(6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79.86%가 리그 선두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홈팀 헬라스베로나의 승리 비율은 7.80%에 불과했고, 양팀의 무승부 예상은 12.34%로 집계됐다.

이어 라리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레알마드리드 역시 79.10%의 높은 지지를 얻어, 7.45%에 그친 오사수나를 상대로 손쉽게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라리가에서 6위를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마드리드도 77.01%의 몰표를 받았다. 그라나다를 상대로 홈경기를 펼치는 아틀레티코마드리드는 안방의 이점을 한껏 살려 10위 그라나다에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토토판들은 전망했다. 레반테와 라치오는 각각 레가네스와 파



르마를 상대로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레반테는 63.38%의 지지를 얻었고, 라치오는 이보다 약간 높은 67.50%를 기록했다.

이번 승무패 6회차는 오는 8일(토) 오후 8시 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마사회, 부패방지 평가 ‘최우수 등급’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93.68점으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제도 운영 등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기관별로 1~5등급으로 발표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직유관단체 등 270개 기관이다.

코로나 차단 위해 체열측정소 운영

한국마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경마공원에서는 이번 주부터 열화상 카메라를 갖춘 체열측정소를 중문, 고객안내센터, 회원실내데스크 등 주요 방문 장소에 마련했다. 관람대 근무자들이 체열 측정을 고객들에게 수시로 안내하고, 이들이 이용할 ‘찾아가는 체열 측정소’도 운영한다. 말 박물관, 놀라운지에는 예방수칙 포스터를 부착하고 손소독제 비치, 근무자 마스크 착용 등을 시행한다.

서울경마공원, 다승 달성 말관계자 포상

한국마사회는 1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2020년 서울 다승 달성 말관계자 포상행사를 시행했다. 300승을 달성한 배후준 조교사와 일기원 기수에게는 기념패와 포상금 200만 원, 700승을 달성한 김용근 기수와 함완식 기수에게는 기념패와 포상금 500만 원을 수여했다. 배후준 조교사는 지난해 9월 1일 6경주에서 경주마 에버디챔프의 승리로 데뷔 14년만에 300승을 달성했다. 정용운 기자

소액으로 즐기는 토토 ‘언더오버’ 6회차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의 인기 배당률 게임 ‘토토 언더오버’가 오는 7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6회차의 발매를 시작한다.

3000원 대의 평균참여금액으로 소액문화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는 ‘토토 언더오버’는 승패를 맞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축구와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혹은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정팀 각각의 최종득점이 주어진 기준 값과 비교해 낮은지, 혹은 높은지 등 다양한 상황을 예상해 맞히는 게임이다. 이번 6회차의 경우 오는 9일(일)과 10일(월)에 열리는 이탈리아 프로축구(세리에A) 3경기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경기, 그리고 미국프로농구(NBA) 2경기를 대상으로 토토판들을 찾아간다.

자세한 일정을 살펴보면, 세리에A에서는 나폴리-레체(2경기)전과 파르마-라치오(4경기), 인터밀란-AC밀란(5경기)전이 선정됐고, EPL에서는 셰필드U-본머스(1경기)전과 맨체스터시티-웨스트햄(3경기)전이 뿔뿔했다. 마지막으로 NBA에서는 오클라호마-보스턴(6경기), 필라델피아-시카고(7경기)전이 토토판들을 찾아간다.